황금, 검은 황금, 하늘황금

(엡3:14~21)

14.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16.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7.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2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21.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황금, 검은 황금, 하늘황금>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추위 속에서 돈이 굴러다닌다, 이런 얘기가 항간에 떠도는 지역이 있습니다.
캐나다 북부의 유전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북부가 아니라도 알버타 주의 남쪽에서는 천연가스를 개발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돈이 굴러다닙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캐나다 북부 유전지역에서는 고졸학력의 4, 5년차 기술자의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샐러리맨의 꿈의 연봉의 선이 10만달라에요, 우리 돈으로 1억 정도지요.
근데 고졸학력 4, 5년차 기술자의 연봉이 1억입니다.
배관공도 연봉이 1억입니다, 중장비 수리하는 사람도 연봉이 1억입니다, 기본이 억이에요.
캐나다 북부 유전지역의 패밀리레스토랑에서 서빙하시는 분들은 월 400만원 받습니다.

하, 굉장한 곳 아닙니까?
이 유전에서 나오는 석유를 검은 황금이라고 합니다.
금 못지않은 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은 황금이라고 말을 하지요.
정말 매장량이 무한대인 이런 유전이라든지 아니면 금광이라든지 다이아몬드 광산, 이런 걸 소유하게 되면 진짜 환상적이지 않겠습니까?
뭐 꼭 이런 게 아니라도 돈이 될 수 있는 자원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를 들어 호주 남쪽 중심에 포트 링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포트 링컨을 중심으로 참치 잡이가 유명하거든요, 이곳의 인구가 만 오천 명밖에 안 되는데, 호주 전체의 백만장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입니다.
거기는 참치가 금인 거예요, 비린내 나는 금인 거지요.
부동산부자들도 돈이 그냥 들어오잖아요, 뭔가 이렇게 돈이 굴러들어오는 그런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걱정할 것도 없고 물가가 좀 오르면 어떻고 내리면 어떻고 까짓것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석유가 검은 황금으로 불리면서 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검은 황금이 나온다고 하는 지역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 캐나다 북부에요.
그래서 텍사스에 넓은 목장을 하나 갖고 있던 사람이 이 유행을 따라서 집과 목장을 다 정리해서 캐나다 북부의 유전지역에다 땅을 사가지고 자기 유전을 개발하려고 갔다가 쫄딱 망했습니다.
망해서 고향에 내려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가 팔았던 자기의 목장 안에서 유전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석유시추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아, 정말 피를 토할 일 아닙니까?
어리석음 때문에 벌어진 이 억울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짝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캐나다 북부 유전지역에서 연봉 1억 받는 사람들 부러워할 것 없다 이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매장량이 엄청난 그런 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검은 황금이 콸콸 솟아나는 그런 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우리 삶 안에 이미 하늘 황금이 솟아나는 그런 하늘 유전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이걸 다 놓쳐버리고 있는 거예요, 몇 푼 벌겠다고.

몇 푼 더 벌겠다고 거기에다 온 신경을 다 쓰고 살면서 하늘황금의 유전이 내 삶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캐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늘황금이 도대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따라서 말씀드리자면, 하늘황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는 하늘황금이에요.
이 땅에 있는 황금 비교할 바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검은 황금이 비교할 바가 아니고, 포트링컨을 중심으로 잡히는 바다 속에서 캐내는 황금인 참치가 비교할 바 못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이 하늘황금을 캐내면서 살자고요.
하늘황금 유전으로부터 하늘황금을 계속 캐내는 동안에 이 세상일은 다 저절로 돼갈 겁니다.
제가 자꾸 저절로 돼간다, 저절로 돼간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세상일은 저절로 되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기를 쓰고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99.9%는 다 죄악입니다.
세금 꼬박꼬박 내고 사업 잘해서 성공해도 99.9%는 죄악입니다, 내가 애쓴 것이라면, 내가 수고해서 이룬 것이면.
세상일은 저절로 돼야 되요.
저절로 되지 않는 모든 세상일은 다 죄악이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주기도문의 내용처럼 그게 다 악입니다.
그러므로 저절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애쓸 것은 하늘유전으로부터 하늘황금을 캐내는 일이에요.

그러면 하늘황금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에베소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간구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얼른 보기에 좀 황당해요.
보세요, 에베소교인들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2000년 전의 그들이나 우리나 사는 게 다를 게 없어요, 인터넷이 있고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지,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16절이 핵심인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무리 읽어봐도 쌈빡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쌈빡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다는 얘기는, 우선 문장 자체도, 나는 국문학자들에게 이 사도바울의 기도를 한번 제시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문법적으로 문장이 맞기나 한 것인지.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가 주어고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문장 자체가.
그리고 그 내용을 다 분해하고 정리해서 정연하게 내용을 이해한다고 해도 쌈빡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것은, 정말 구체적이고 속 시원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이 잘 되세요, 장사 대박 나시기를 바랍니다, 하시는 일 다 형통하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몸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말들 이런 간구들 있잖아요?

근데 무슨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며…'
왜 속사람만 강건합니까? 이 겉 사람이 강건해지고 좀 부유해지면 안 됩니까?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사는 사람으로서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장사해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승진을 해야 되는 이 모든 우리의 삶에 필수적으로 여겨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함구무언이냐 이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신경할 수 있겠습니까?
20절에 그나마 희망적인 말씀이 보여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돼있습니다.
희망적이잖아요?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그런데 골로새서 3장에 가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엣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2절에 '위엣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래요, 그래놓고 에베소서에서는 '너희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구하는 것도 하늘만 구하면서 살라 이겁니다.

자, 이러한 답답한 전제를 놓고 오늘 말씀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내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는 능력이 되신다는 얘깁니까?
이 복잡한 문장을 분해해보면 이런 얘기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합니다, 마치 석유매장량이 무한대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대로 하늘에 매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 속사람, 육체가 아닌 내 속사람은 내 마음이고 인격을 말합니다.

그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는 재료가 되시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그 무한한 자원인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고 고백을 하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무한대 매장량인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 것이 되는데, 이게 다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에요.
오늘의 내용은 그겁니다, 문장을 정연하게 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내면.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한 자산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재력, 학력, 권력, 이렇게 힘력(力)자를 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힘을 총망라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재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학력, 우리의 권력, 이 모든 힘의 총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주는 뜻이 깊어요.
그리고 반복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풍요하게 해줍니다, 그 뜻을 반복해서 음미할 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서 1등을 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갖고 계신 그 영화로움이 내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현실이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에서 황금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올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황금보다 훨씬 더 큰 재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1등이 되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면, 도대체 내 마음속에 재력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검은 황금이 들어올 틈바구니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에서 1등이 되면서 내 마음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모아 그걸 손아귀에 놓고 깃털처럼 가볍게 여기면서 어느 것 하나도 더 끌어당길 필요가 없는 마음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 검은 황금, 누런 황금, 바다에서 캐내는 황금, 모든 재물의 가치들을 다 모아놓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지면서 그 영화로움 때문에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내 마음의 상태가 될 때, 도대체 이 세상 가치들은 내 마음에서 상대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안에 들어가 있는 내 마음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내팽개쳐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알고 났더니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내 것이 되느냐?
딴 거 없어요, 행동하고 행위하고 수고하고 애쓰기 전에, 이 세상에서 황금을 쥐기 위해서 검은 황금, 바다의 황금을 쥐기 위해 애쓰기 전에 그냥 내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었어요, 믿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딱 대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까지 지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보내시는데, 그 사랑의 내용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예수님께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이 머물면서 그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다 내게로 전달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모든 일이 다 성령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와 붙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 계실 때 그 하늘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이 머물게 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한없이 한없이 주시는 그 사랑의 현장 속에서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끔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누라 우리를 끊으리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끊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어떤 고난이 주어져도 그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으로 해결합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해결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결해버리는 거예요.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캐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면서 이 세상 모든 가치들이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지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행위 하기 전, 돈 많이 벌겠다고 나가서 장사하기 전에,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갖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그냥 십자가의 주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라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무한히 당신 자신을 주실 때,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무한한 거예요, 무한한 매장량이지요, 하나님이 내게서 1등하시면서 내게 주어지는 그 행복이라는 게 무한한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대해 죽으면서 하나님이 1등할 수 있는 조건이 마음에 갖춰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와서 영광을 받으셔서 1등하시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의 금을 캠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이 1등하시고 내일도 1등하시고, 맨날 1등하셔도 끝이 없는 거예요.
1등 한다는 게 뭐예요?
돈보다 좋고, 그러니 돈이 없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건강보다 좋고, 건강에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고, 무슨 문제가 있어도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라는 거냐?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1등 하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늘의 황금을 캐내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1등 하게 되면 이 세상은 억지로 할 것도, 애쓸 것도, 노력할 것도, 수고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하늘의 황금이 캐져서 하나님께서 1등 하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면, 상황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룻이에요, 룻.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옵니다, 자기의 고향땅을 다 버리고 옵니다.

근데 그 나오미가 돈 많은 과부가 아니에요, 아들 둘 잃고 남편 잃고 재산 다 잃은 거지입니다, 그 힘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온 이유가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룻의 인생을 위한 싸움은 속사람의 싸움이에요.
나오미처럼 가난하게 돼버리고 망하게 된 사람이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므로 룻은 이 세상에서 돈 잘 벌고 형통하고 잘살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시어머니를 망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쫓아서 고향땅을 버리고 팔레스틴으로 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망하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 먼저 보내지 두 아들 먼저 보내지 재산 하나도 없고 타지에서 살 수가 없어 고향땅으로 되돌아오는 낙오자요 실패자가 믿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옵니다.
이게 속사람의 싸움으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은 거고 하나님만 1등 하신 거예요, 룻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1등이니까 이 모든 것 다 없는데도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그리고 한 것이 뭡니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의 밀밭에 가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주워서 근근이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밀 이삭 주우러 밀밭에 갔다가 보아스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모가 됩니다.

한 집안에서 왕을 배출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얼마큼 노력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나오미 따라온 룻이 한 것은 그냥 하나님을 1등으로 모신 것, 하늘의 황금을 캐낸 것 말고는 그 다음에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꿈을 가진 것도 비전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서 밀밭에 가서 밀 이삭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에요, 요셉이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족의 자녀가 총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큼 노력해야 될 거 같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떠돌아다니는 부랑민족이었던 히브리인의 아들로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한 것은 겉 사람의 노력을 한 게 아니고, 체제와 정권의 실세를 파악해서 노력하고 이런 게 아니고, 역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역경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고 믿었던 것 하나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면 하나님이 1등 못했어요.
근데 역경에 처할수록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1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한분 있으면 된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유일한 가치와 의미를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이 자기를 판 게 아니라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거라고 이해한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속사람으로 하늘 황금을 캐낸 것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셔, 내가 지금 돈이 없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자' 이게 하나님이 1등 한 거거든요, 돈을 이긴 거예요.
돈 때문에 걱정하면 돈이 하나님을 이긴 거죠.
자식 때문에 걱정하면 자식이 이긴 거죠.
자식이 이러이러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계시니 기뻐하자, 이게 하나님이 1등 한 거고 영광을 캐낸 거지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만 캐내기 위해서 십자가 붙잡고 다 죽자 이거예요,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안 이루어질 때 다 죽어버립니다.
하나님 영광 캐내고 나서 주어지는 상황에서 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일을 그냥 해버리면 다~ 이루어지게 돼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황금, 부러워할 것 없어요.
검은 황금이 매장된 유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부러워할 것 없어요.
우리 손에 하늘황금이 무한대로 매장되어 있는 유전이 있습니다.
그 시추작업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서 세상에 대해 죽어서 하나님이 1등 할 때 영광의 하늘황금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세상을 깃털처럼 가볍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속사람의 능력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수고하고 애쓰고 행위로 나서기 전에 돈 벌겠다고 하기 전에 먼저 내 손 안에 주어져 있는 하늘 황금이 무한대로 매장돼있는 하늘유전을 캐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날마다 1등 하셔서 하늘 황금을 가득가득 내 마음에 채우고 이 세상을 공 차듯이 차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